



민족의 명산 (3) 칠보산



예로부터 《함북금강》으로 널리 알려진 칠보산은 명산으로서의 특이한 자연환경을 이루고있을뿐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있는 조산의 이름난 명승지의 하나이다.

함경북도 동해안의 남부에 위치하고있는 칠보산은 백두화산대의 한 부분으로 백두산이 형성될 때 같은 화산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산으로서 그 면적은 약 250km에 달한다.

현무암, 류문암, 알카리조면암, 규장암들이 뿔여올라와서 식을 때 생긴 무수한 틈결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풍화침식되고 무너져내리면서

칠보산은 지금처럼 기묘하고 독특한 경치를 이루게 되었다.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산발들과 좁고 깊은 계곡들, 기묘한 봉우리들과 기암들, 팔짜기를 따라 흐르는 맑은 물, 장쾌한 폭포와 담소, 바다가의 해안절벽과 기묘한 석바위들, 사철 샘수는 온천들로 하여 풍치가 매우 아름다워 산이름도 진귀한 일곱가지의 보물에 비기어 칠보산이라고 지어졌다.

칠보산은 지역별특성과 참관로정에 따라 크게 내칠보, 외칠보, 해유적유물들과 중세 우리 선조들의 반침략투쟁과 슬기로운 지혜와 재



능을 보여주는 산성, 건물과 무덤, 비, 부도 등 유적유물들이 적지 않게 보존되어 전해오고있다.

참다운 명산의 의미는 결코 자연의 경관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예로부터 위인이 있어 명산이 빛난다고 했다.

옛날 외로운 오솔길 하나만이 나있어 그처럼 아름다운 일관경치를 가지고있으면서도 적막하던 칠보산이 오늘을 절세위인들의 사랑의 손길아래 인민의 명산, 훌륭한 문화휴식지, 유명한 관광지로 되었다.

본사기자 리철민

국도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 가겠다

◇ 리명수 국도환경보호성 처장과 나눈 대담 ◇

최근 공화국에서 국도환경보호사업에 특별히 큰 힘을 쏟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자는 리명수 국도환경보호성 처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 자: 경 예 하 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전국적인 국도건설총계획을 바로세우고 도, 시, 군들에서 치산치수를 비롯한 국도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집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도, 시, 군들의 역할을 높여 국도관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는데 이 사업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리 명 수: 국도관리사업은 곧 경제건설이며 국가발전의 필수조건인 인민들의 생명안전과도 직결되어있는 중차대한 사업이다.

국도관리사업을 소홀히 하여 산과 강, 바다와 바다가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기 위한 터전이 아니라 불모의 땅으로 된다면 이것은 후대들에게 큰 죄악을 저지르는것으로 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재해성기상현상이 우세해지고 우리 나라에도 그 위험이 닥쳐오고있다.

때문에 그 어떤 우연이나 요행수에 기대를 걸면서 이 사업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대한다면 그로 하여 초



패되는 엄중한 후과는 한계 지역이나 단위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당대회결정관철과 우리 국가의 전진발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 자: 나라의 모든 지역을 일신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무엇인가.

리 명 수: 우리 나라는 국토의 많은 면적이 산으로 되어있고 도처에 강하천이 많으므로 치산치수사업에 힘을 넣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도, 시, 군들에서 최근년간 위험도수가 더욱 높아지고있는 이상기후현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드세게 내밀고있다.

강원도에서 지대적특성에 맞으면서도 경제적가치가 높은 산악지대나 무모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 도양묘장에 참여가치의 산악지대나 무모를 적기에 파종하였다. 뿐만아니라 화창군, 경원군, 중산군, 태천군을 비롯한 많은 군들에서도 모든 산을 황금산, 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수백여정보의 면적에 대한 나무심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그리고 강화천바다파괴와 제방, 호안공사에서의 기계화비율을 더욱 높이고 큰물피해위험대상에 로력과 자재, 설비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이 박력있게 진행되고있다. 많은 시, 군들에서 큰물통과능력제고를 위해

조선의 국가 상징

참매

오랜 옛날부터 우리 겨레에게 널리 알려지고 친숙해졌을뿐 아니라 강의하고 용맹한 조선사람의 기질을 그대로 닮은 참매는 조선의 국조이다.

참매는 해동청, 보라매 등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웠는데 해동청은 조선의 푸른 매라는 뜻으로서 주변나라들에서 조선의 참매를 가리켜 푸른 이름이었다.

또한 보라매는 그해에 나서 길들여진 매로서 가슴부위의 털 색깔이 보라색을 띠

고있다는데로부터 불리워진 이름이라고 한다.

참매는 몸집이 그리 크지 않지만 날카로운 부리와 억센 발톱, 매우 빠른 속도, 명리하고 결쾌있는 성질, 밝은 눈을 가지고있다.

장천[호부덤을 비롯하고 구려시기 벽화무덤들에는 매를 길들이는 사람의 모습과 매를 리용한 사냥장면들이 그려져있는데 이것은 고구려사람들이 일찍부터 민첩하고 용맹스러운 참매를 사냥에 널리 리용하였

을뿐 아니라 예술작품에도 적극 반영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참매를 리용한 사냥이 활발히 진행되고 사람들의 생활속에 깊이 침투되면서 그와 관련한 수많은 력사이야기, 일화와 함께 《시치미를 때다》, 《청산에 매농기》, 《매한테 쫓기는 꿩》을 비롯한 기지있고 뜻이 깊은 속담들이 생겨나 오늘까지 전해지고있으며 《해동청》, 《까투리랑》과 같은 많은 시작품과 민요도 창작되었다.



본사기자

혈분의 자옥을 탐간 지사들

김익상은 평안남도 강서출신으로서 일제기 부모를 여의고 독립운동의 길에 한몸바쳐 싸운 애국자였다.

고난에 찬 생활과정에서 반일감정을 가지게 된 김익상은 자기의 뜻을 나라의 독립을 위한데 두기를 결심하였으며 무기를 휴대하고 일제의 두목들을 처단하기 위한 활동을 벌리기 시작하였다.

반일사상이 강했던 그는 조선에 나가 사이토총독을 처단하면 나라의 독립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실천행동에 옮기기 위해 노력했다.

김익상은 1921년 9월 10일 폭탄 2개를 가지고 베이징을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 조선으로 향하였다. 압록강을 건너 서울에 도착한 그는 만단의 준비를 갖춘 후 일본인전기수리공으로 변장하고 조선총독부청사에 들어가는데 성공하였다. 은밀한 방법으로 청사의 2층으로 올라간 그는 마침내 조선총독부의 중심부로 되어있던 비서과 회계과에 복수의 폭탄을 던지였다.

은 서울시내를 휘돈드듯 한 폭음에 놀들은 아연실색했다.

그는 놀들이 당황하여 돌아치는 틈을 타서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하였다.

김익상은 비록 사이토를 죽이지 못했으나 조선총독부폭

파사건은 일제식민지통치자와 그 주주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김익상은 그 다음해인 1922년 상해에서 오성룡, 리종단 등 동료들과 모다시 새로운 복수대상을 탐모하였다. 바로 이때 전 일본복군대신이었던 다나카 기이찌가 중국시찰을 위해 펠리핀으로부터 기어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일본옷차림을 하고 폭탄과 권총을 휴대한 김익상은 동료들과 함께 복수의 길을 떠났다. 그는 경찰의 눈을 속여 세관을 무사히 통과한 다음 다나카가 도착하는 황포강하류 조차장으로 갔다. 드디어 다나카가 도착하였다. 이 때 원형군총독에 끼여있던 오성룡이 먼저 저격하였다. 그러나 그 총알은 놀을 명중하지 못하였다.

뒤이어 김익상은 품고있던 폭탄을 힐끗 던졌다. 그러나 아쉽게도 폭탄은 불발되었다.

일대 소동이 일어난 틈을 타서 몸을 피하던 그는 그만 부상을 당하고 경찰놀들에게 체포되었다.

그후 일본의 나가사끼재판소로 이송되던 김익상은



독립운동자 김익상

재판장에서도 애국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일제와 맞서 용감히 싸웠다. 그는 재판관들의 질문에 《다나카는 우리의 큰 원수이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리익이 되는 점은 조선독립밖에 다른 아무것도 없다.》고 항거하였다.

김익상은 옥중투쟁을 계속하다가 21년만에 출옥하였다. 하지만 일제경찰은 그를 끝내 암살하고말았다.

김익상의 애국적소행은 당시 중국, 일본신문들에 널리 소개되었으며 그것은 독립운동자들에게 큰 고무로 되었다.

독립운동자 김익상은 개인 레토라는 투쟁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었으나 그의 반일사상과 의로운 행적은 오늘날 민족의 기억속에 남아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 조희승

사화

《쇠도리깨다!》 (2)

글 리빈, 그림 김윤일

조선사람들은 아득한 옛적부터 밀보리털기를 비롯한 거의 모든 낱알털기에 도리깨를 써왔다. 보습을 떠난 밭갈이를 생각할수 없듯이 도리깨가 없는 낱알털기를 생각할수 없다. 때문에 그가 농사꾼이면 누구나 도리깨질에 익숙해야만 했다. 아버지는 아들한테 딸이든 열두어살에 이르기만 하면 그들에게 애기도리깨를 만들어준다. 농사꾼들의 자식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도리깨질을 더듬어 배우는 것이다. ...

이날 아침 현노술이는 집에 이르자마자 곧추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뚜막에 아무렇게나 걸려있던 당풍을 뜯어보러 한사발을 열면 먹어치운 뒤 서둘러 마당으로 나갔다. 늙은 부모들과 안해무덤이 밭단을 틀어 마당에 널어놓는 사이 그는 도리깨장부끝에 뿔난 구멍에 꼭지를 가로 꽂고 두가닥 물푸레나무를 노글노글한 줌으로 단단히 비꼬려였다. 어제 그가 풍덕물 애권기습작전에 동원되어 없는 사이 아버지는 어머니와 머느리를 데리고 첫 마당질을 시작했었다.

아들을 쳐다볼 계제도 못되거니와 농사로 늙은 아버지는 건강하여서 아직 도리깨 짬을 훑아분히 다룰수 있었던것이다.

이날 어두워 일손을 멘 노술이와 그의 가족들은 도리깨들을 도방머리에 세워놓고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먹었다. 밤이 되자 의병기지 환골은 고요에 잠겼다. 어느 집에서도 기적이 없었다. 그도 그럴밖에 없는것이 하지죽여서 잠이 가장 그리운 때이기에 한데다가 고된 밀마당질에 녹초가 되다보니 사람의 졸막에 업어갔다.

어기로 왜군무리가 덤벼들었다. 놀들을 제때에 발견한 파수들이 북을 울리자 집집에서 농군-의병들이 창칼을 들고 뛰쳐나왔다.

깊은 잠에 빠졌던 노술이도 당개줄 휘둘러 벌떡 일어났다. 그는 방안벽에 걸여두었던 칼을 움켜잡고 지휘부로 달려갔다. 비상소리가 울리지만 하면 모든 의병들이 거기에 집결하여 의병장의 명령을 받도록 정연한 체제가 서있었던것이다.

그들은 죽시에 왜놀들을 맞받아쳤다. 놀들은 의병들과 싸우는 한편 밀보리털가리들에 불을 지르려고 발광하였다. 온 마을의 밀보리털가리들을 다 불살라버리려는 의병들과 그 가족들이 몽땅 굶어죽게 하자라는것이 놀들의 기본 목적이었다. 여기저기에서 타오르는 밀보리털가리불길이어둠속에서 벌어지는 격전마당을 관하게 비쳐주었다.

의병부대가 적들을 물리쳤을 때 노술이는 굶히 집으로 내달았다. 가족들과 밀날가리에 화가 미쳤을것만 같아 타는듯 속을 조인 그였다.

집마당가에 다달아보니 밀날가리들레에 몇개의 왜자루 불이 타고있었는데 안해무덤의 모습이 보이자 저 도 모르게 후유- 한숨이 새 나왔다.

밀날가리는 밀들레가 거렇게 그슬렸을뿐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왜놈이 여기에 너부러져있으니 대밭질 어찌된 노릇인가?

그는 물었다.

《아버님, 어떻게 되어 왜놈이 여기서 죽었소이까?》

《응, 그럴 일이 있었다.》

현로인의 대답은 이러했다.



없었다.

구원의 손길이 없어서 밀날가리가 몽땅 제머미로 변했다면 온 가족이 굶어죽을 지경에 이를수밖에 없었거늘 그 불행을 막아준 구원자가 따로 없었나? ...

왜놈 하나가 거북거북 그슬린 밀질에 머리를 쳐박고 엎어있었다. 그걸에는 꼭지가 부러진 도리깨가 보였다. 장부에서 떨어진자간 그 도리깨아들끝에는 피가 배어있

없었다.

갑자기 리지는 북소리와 함께 화닥닥 깨어난 노술이가 《아버님! 피하세요!》 하고 웨치면서 뛰어나가 가족들은 부랴부랴 옷을 대수 걸치면서 방문을 나섰다. 불길에 휩싸인 앞집의 밀날가리가 확 안겨들었다. 별안간 발자국소리가 어지러기 들려며 해발 몇개가 자기에 집쪽으로 달려왔다. 그중 한개의 왜자루불이 집마당의 밀날가리로 날아들었다. 순간 저 왜

놀들이 우리 낱알에 불을 지르는 경우 우린 다 굶어죽는다는 생각이 로인의 머릿속을 번개쳤다. 동시에 칼을 휘두르는 왜무리들이 자기 가족들에게로 덤벼드는 환영이 눈앞에 닥쳐오자 로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이제는 피할 길이 없다. 저

놀들이 그앞에 달려들었으니... 그였다.

내 한몸 내내어 가족을 살려내고 밀도 지켜내자!

그런데 어떻게? 맨주먹바람으로가 어찌되지 않는가? ...

순간 도방머리의 도리깨들에 눈길이 갔다. 로인은 그것을 붙여치고 내달으며 날가리에 불을 지르는 왜놀들을 향해 벼락같이 휘둘렀다. 아직도 기력이 정전한 늙은이가 어릴적부터 손에 익혀온 도리깨질은 무사였다. 그가 앞뒤를 가려볼새없이 미친듯 도리깨를 휘둘러 타격을 퍼붓고있을 때 로인레와 머느리 역시 도리깨를 주쳐들고 뒤따라나섰다. 그들도 도리깨질로 성장한 농사꾼들이었다.

로인의 도리깨에 한놈이 겨우리졌는데 두사람이 또 도리깨를 휘두르며 사냥개 달려들자 질질한 놀들은 도망쳐버렸다. ...

현로인의 말을 들은 이웃들이 경탄을 리뜨였다.

《노술이 어른께선 칼두창두 아닌 한갓 농쟁기루 가족들을 구원하구 밀두 건져냈구나. 쯔-쯔!》

《앞집에선 그럴 엄두를 못냈던가봐. 밀날가리가 하늘로 날아가버렸으니 그 많은 아홉식구가 뭘 먹구 살고.》

《도리깨따위가 왜죽을 잡을줄이야. 허참! 아무튼 현로인이 당두 코지!》

《...》

노술이는 마음속 격동을 금치 못했다.

다리에는 일제식민지통치자와 그 주주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김익상은 그 다음해인 1922년 상해에서 오성룡, 리종단 등 동료들과 모다시 새로운 복수대상을 탐모하였다. 바로 이때 전 일본복군대신이었던 다나카 기이찌가 중국시찰을 위해 펠리핀으로부터 기어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일본옷차림을 하고 폭탄과 권총을 휴대한 김익상은 동료들과 함께 복수의 길을 떠났다. 그는 경찰의 눈을 속여 세관을 무사히 통과한 다음 다나카가 도착하는 황포강하류 조차장으로 갔다. 드디어 다나카가 도착하였다. 이 때 원형군총독에 끼여있던 오성룡이 먼저 저격하였다. 그러나 그 총알은 놀을 명중하지 못하였다.

뒤이어 김익상은 품고있던 폭탄을 힐끗 던졌다. 그러나 아쉽게도 폭탄은 불발되었다.

일대 소동이 일어난 틈을 타서 몸을 피하던 그는 그만 부상을 당하고 경찰놀들에게 체포되었다.

그후 일본의 나가사끼재판소로 이송되던 김익상은

리가 아픈 질병들을 치료할수 없다고 한다.

다리육은 연속 2~3일동안 하는것이 좋으며 다리육을 한 후에는 더운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몸에 맹이 많은 사람은 한주일에 한번정도 약쑥을 리용한 다리육을 하는것이 좋다. 다리육을 하는 동시에 생강대추차를 마시면 뺨을 없애면서도 기가 손상되는것을 방지할수 있다.

쑥을 리용한 다리육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쑥은 맛이 쓰고 성질이 차므로 내열을 띠며 특히 몸안의 화를 없애려는 작용을 한다. 허약한 사람들은 나기와 열이 부족한 사람들은 쑥을 리용한 다리육을 하지 전에 반드시 원기를 보충할수 있는 음식물을 먹어야 한다.

약쑥을 리용한 다리육

다리에는 일제식민지통치자와 그 주주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김익상은 그 다음해인 1922년 상해에서 오성룡, 리종단 등 동료들과 모다시 새로운 복수대상을 탐모하였다. 바로 이때 전 일본복군대신이었던 다나카 기이찌가 중국시찰을 위해 펠리핀으로부터 기어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일본옷차림을 하고 폭탄과 권총을 휴대한 김익상은 동료들과 함께 복수의 길을 떠났다. 그는 경찰의 눈을 속여 세관을 무사히 통과한 다음 다나카가 도착하는 황포강하류 조차장으로 갔다. 드디어 다나카가 도착하였다. 이 때 원형군총독에 끼여있던 오성룡이 먼저 저격하였다. 그러나 그 총알은 놀을 명중하지 못하였다.

뒤이어 김익상은 품고있던 폭탄을 힐끗 던졌다. 그러나 아쉽게도 폭탄은 불발되었다.

일대 소동이 일어난 틈을 타서 몸을 피하던 그는 그만 부상을 당하고 경찰놀들에게 체포되었다.

그후 일본의 나가사끼재판소로 이송되던 김익상은